

(This man refers to the Victor Savior in the Bible)

The Holy Dew Spirit falls in every altar

The blood flowing in humanity is 6000 years old. The spirit of Satan is also 6000 years old.

That 6000 year-old Satan is good at luring human beings and in to kill them. There is no man who is smarter than Satan in the world. There is only one person who is more intelligent than Satan and He is the Savior.

Also, This man stops typhoons from coming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nd removed communist.

Additionally, He stops the rainy seasons, makes Korean harvests abundant and prevents Korean wars. As This man is powerful, He does like that. If This man does not have such ability, He is a false Savior.

Because the other selves of This man becomes the Holy Dew Spirit, it falls. If it goes through the pores of humanity,

they all becomes God. As This man stands on the rostrum in the Victory Altar, the Holy Dew Spirit does not fall only there. As the other selves of This man is present, the Holy Dew Spirit descends not only in all the Victory Altar in Korea and not only in altars of Japan and America.

One should not move in the situation of Satan but in the situation of God

This way is towards the one with the heart. Only if one moves in the situation of God, that is the one way of going toward God. All thoughts in the situation of Satan, that is, in the situation of consciousness of 'I' are the minds of Satan.

Therefore, if 'I' laugh, it is the laugh of Satan. Those who do Tao should know whether their positions are in God or Satan. That is the starting point for doing Tao. The man who does not find the level is the man who does not start doing Tao.

This is the way to the heart of God

religion. Also, the learning of consciousness of 'I' is not learning. Knowing and thinking in the situation of God is the learning of true life.

So This man speaks that there was no learning in the world.

Only if God leads Satan of 'I' and insists, it is doing Tao

When you hear, 'you become Victors', those who think, 'I did not defeat, God defeated' become Victors. If one cannot think like that, it is a long way to become Victors to them. Only God defeated Satan, Satan cannot defeat Satan. Therefore, the way of doing Tao in the Victory Altar is very different from the Tao in the world.

Because consciousness of 'I' is Satan, not acting as consciousness of 'I' orders, but acting as God insists is doing Tao. There is nobody who knows this. So pastors and monks cannot reach the level of Tao. The meaning of reaching the level of Tao knows the existence of 'I'. Because con-

sciousness of 'I' is Satan, throwing away 'I', starting mind's fighting by defeating 'I' throwing damping 'I', Tao begins. The man who does not do that fighting does not do Tao. So by overcoming 'I', you are changed and then at first you become like a tree.

Although 'I' am sick, 'I' do not feel sick, though 'I' am sad, 'I' do not feel sad, and though 'I' am happy, 'I' do not feel happy. That is, emotion disappears. That is the first step in the process of reaching nirvana. That is, the mind of humanity perishes. That is the basic attitude of Tao. Then no matter how difficult a man works, he cannot feel the pain. Although he sits on his knees, he does not feel painful. No feeling arises to him. So he became like a tree. But he is not finished. If he thinks he is done because he completely became like a tree, it is an illusion. That is the beginning of changing, that is the starting point of a human becoming God. One should become in a level that they does not know whether 'I' exist or not. One should be on the level which they cannot be consciousness of themselves though they try to be consciousness of

themselves, which they cannot know whether they exist or not in the world, whether 'I' stay at home.

At the times of Jeondogwan, the Spiritual Mother said, "one is saved in the level which one becomes like a tree." When This man went to the Secret Chamber, He became like a tree in 3 months. This man thought that He was done but it was just beginning. However, after becoming like a tree, This man started to be changed, His human character disappeared 100 percent completely.

After that, This man did not feel pain though He was sick, He did not feel tough though His life was tough. Then His heart was not moved. Although This man saw good things, He did not feel good, though He saw bad things, He did not feel bad. It did not matter what others did. So This man did not commit an interfering lewd sin. If one meddles about what brothers do, it is a interfering lewd sin. Humanity has a habit to think of their past, This man got to the level which He could not think of His past though He tried to think of His past.

It was accomplished in 3 months. Like that This man's tenacity was so strong, if He

tried to decide to do something, He finally did without sleeping at night. So He reached that level in 3 months. At that time, This man thought that He was done. But it was not accomplished again. Also it was another starting point again, He was a long way to be completed. Next, God said that thinking of one's family is a lewd sin of interest. At first This man did not understand that, but He obeyed God. Some time later, This man reached the level that He could not think of His family though He tried to think of His family.

Regard everyone as my bodies, regard everyone as my God

Then, This man reached the level that He cannot get angry. Everyone, if a person makes others angry, they get angry. If one's self respect is revealed, they commits a self-respect lewd sin. However, This man overcame a self-respect lewd sin. That way is to regard everyone as my seniors. As This man regarded not only children but also everyone as His Gods, His pride Satan died. Even though others bother and hit a man without any reasons, only if he has no thoughts, he is a Victor. This condition means to defeat oneself. That is doing Tao. As each assignment was ordered, This man defeated continually, He became a Victor. Therefore, you should overcome yourself continuously to become a Victor.*

From a sermon of the Savior on Oct 16th, 2001

Translation : Angel Kim

빨리 떠나야겠다는 내 말을 듣고 보안청장과 상의를 하겠다고 돌아갔던 보안청 과장이 저녁 때에 다시 와서는 "어디로 갈 것이냐?" 물으며 가고 싶은 나라를 체크하라고 종이에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 등을 적어 온 것을 보여주며 "가고 싶은 곳을 적으라"고 했다. 그래서 빨간 연필 가져오라고 해서 대한민국을 제일 먼저 쪽 지워버렸다. 그리고 "미국도 일본도 안 된다. 나머지는 어디든 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결정을 못 하겠다"고 하니가 보안청 과장은 "그러면 정부하고 다 얘기 된 거니까 대만에 가서 석 달 체류하면서 다시 천천히 생각해 보라. 그런 후에 가고 싶은 나라 이름을 적어라. 내일 모레 새벽에 헬기 타고 여기를 떠날 것이다. 준비행장에 가서 속력 빠른 비행기를 타고 가기로 하였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큰처남이 "조총련에 언제쯤 가겠음"하며 자꾸 재근하는 것이었다. "사흘 기다리라고 했잖아, 좀 압전히 기다리고 있어"라고 우리가 떠날 날짜에 하루 보태서 말했다. 그리고 이들이 지나 새벽 한 두시쯤 됐을 때 군인들이 비상소집해서 우리에게 몰려와서는 빨리 떠나야 된다고 재촉하는 것이었다. 많은 군인들이 몰려와서 그러니까 큰처남은 조총련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정실이 없는 가운데 군인들이 안내하는 배 위에 헬기장으로 갔다. 군인들은 우리 가족을 한 사람씩 부축해서 데려갔다. 그리고는 "빨리 타십시오" 하니가 큰처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헬기에 올라탔다.

(김만철 일가의 탈출 사건에 관계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사이의 외교전이 벌어졌을 당시 그 상황에 대하



김만철 선생 탈북기

여 보도된 기사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한편 김만철 일가를 공해상에서 접수하기로 일본 외무성과 합의를 본 이재춘 참사관은 즉각 외무부 본부에 협의 결과를 전문 보고하고 "구체적인 인수 지점과 일시는 직접 보고하겠다"고 했다. 전화로 보고했다가는 북한에 의해 도청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 부로부터 귀국 지시가 떨어지자 이 참사관은 2월1일 아침 부인에게도 알리지 않고 서울행 첫 비행기에 올랐다.

이 참사관이 서울에 도착하자 최광수 외무부 장관은 그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다. 도착한 곳은 청와대 바로 옆의 '공정동 안가'였다. 그곳에는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실력자인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과 이기백 국방부 장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자복 합참의장과 최상화 해군 참모총장, 김인기 공군참모총장 등 기러성 같은 인물들이 속속 도착했다.

이 참사관은 국가보안 당국의 수뇌부 앞에서 약 20분간 일본 측과의 교섭 내용을 브리핑했다. 브리핑 중간 중간 장세동 부장은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을 던졌고,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직통전화로 군 수뇌들에게 직접 지시했다.

그날 공정동 안가 회의는 김만철씨 일가를 인수하기 위한 사실상의 '군사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서

제19화 대만으로 가려고 헬기장으로 갔는데...



갑작스럽게 군인들이 와서 우리 식구들에게 헬기를 타라고 하였다

작전'이 논의됐던 것이었다. 북한은 북한대로 김만철 일가의 한국 망명만 돕는 저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탓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경우에 따라 전쟁 상황도 상정하는 분위기였다. 이 참사관은 그날 회의를 마치고 밤늦게 일본으로 돌아왔다.

당시 안기 회의 결과는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즉각 전군에는 비상 경계령이 발동됐다.

그러나 이튿날인 2월2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 참사관을 외무성으로 불러들인 후지타 기미오(藤田吉郎) 외무

성 아시아 국장이 김만철 일가의 추방 계획 백지화를 통보한 것이다. 청진호가 너무 낡고 엔진도 못 쓰게 돼 더 이상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였다.

석연치 않은 설명에 이 참사관은 "외무성이 한다는 일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라고 강력히 항의했지만 "정말 미안하게 됐다"는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물증은 없었지만 북한에 억류 중인 후지산마루호 선장에 대한 북측의 살해 위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주일 대사는 북한이 한일간의 '공해상 추방계

획'을 눈치 채고 후지산마루호 선장에 대한 살해 위협을 가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본부에 보고했다.

한일 간에는 냉랭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다. 김씨 일가를 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되는가 싶은 순간 '대만행(行)'이라는 새로운 해법이 등장했다. 당시 대만은 일본과 수교하지 않았지만, 한국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시절이었다. 일단 김씨 일가를 대만으로 보냈다가 일정기간 이후 한국으로 송환하는 우회적 방법을 쓰자는 구상이었다.

일본은 우리 정부 고위층과 친한 한 '막후인사'를 통해 김씨 일행이 대만으로 갈 수 있도록 대만과의 교섭을 우리 정부가 맡아주기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의 사람들'(노진환 저)에 따르면 이 막후인사는 나카소네 수상의 정치 자문역을 맡고 있던 세지마 류조(瀬島龍三) 전 이토추 종합상사 회장이었다. 한일 외교사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막후에서 조정 역할을 한 세지마는 베스트셀러 소설 '불모지대'의 주인공인 이키 타다시(巖城正)의 실제 인물로도 유명하다.

어쨌든 정부는 고위층의 지시를 받아 곧바로 대만과의 교섭에 돌입했고 김씨 일가의 망명을 둘러싼 한·대만 간의 불꽃 튀는 밀고 당기기가 시작됐

다. 최광수 외무장관은 추경(鄒暉) 주한 대만대사와 은밀히 접촉해 김씨 일가의 대만행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만 측은 이를 즉각 거부했다.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정부는 김씨 일가가 대만에 도착하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한국으로 데려오겠다고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백범 김구 선생의 아들인 김 신 전 대사와 박수길 외무부 차관보 등이 대만에 급파됐고, 정일권 전 국회의장 등 전직 고위관리들도 총동원돼 장정귀(蔣經國) 대만 총통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에게 전화 공세를 펼쳤다.

우리 측의 전방위적인 설득에 대만 정부는 결국 입장을 선회했다. 김씨 일가의 대만 체류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면 대만행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내보인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김씨 일가가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으로 보내지면 북한으로부터 '짜고 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미 교섭은 한국과 대만 손에 넘어와 있는 상태였다.

드디어 2월7일 밤, 김씨 일가족의 극비 이송작전이 시작됐다. 밤 11시경 김씨 일가 11명을 태우고 공군기지를 이룩한 일본 자위대의 YS-11기는 이튿날 새벽 0시25분에 타이베이의 중정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김씨 일가는 타이베이 하위층의 특수기관 전용 초대차로 옮겨 20여 시간을 머문 뒤 2월8일 저녁 8시30분에 대한항공 727기에 탑승해 약 2시간 뒤 한국땅을 밟았다. 그 과정은 그야말로 '전광석화'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김씨 일가족의 망명극은 24일 만에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연남뉴스 2011-11-07 (외교열전) '김만철 일가를 데려와라' 삼각 외교전)